

한국형 오픈하우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I) - 3침실형 30평형대를 대상으로 -

The Behaviors of Spatial Usages in Korean Apartment for Development of Open Housing System(I)

- with special reference to 30s pyong apartment with 3 bed rooms -

김미희* 이유미**
Kim, Mi-Hee Lee, You-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behaviors of spatial usages such as patterns of spatial usages, perception on residential spaces, and furniture arrangement.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were adopted in this study, and 146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with 3 bedrooms, stairway access, and 3-bay style in the City of Gwangju.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1) dining-kitchen (DK) was conceived and used as a space not only for dining but also family gathering and guest reception. Dining table without refrigerator was frequently found in furniture arrangement of DK, and refrigerator has been relocated in utility room facing DK. The results imply the need for social interaction that has been growing. Anbang (master bedroom) has been perceived and used as couples' private area, aside from the traditional function of family interaction. A coordination of both bed and wardrobe out of different furniture arrangements was popular in anbang. Living room was used as a multi-purpose room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such as family gathering, guest reception, and housekeeping. Sofa and cabinet were the most common furniture arrangement in living room. The research results are a basis for development residential open housing system.

Keywords : Patterns of spatial usages, Perception on residential spaces, Furniture arrangement, Behaviors of spatial usages
주요어 : 공간사용실태, 공간사용의식, 가구배치유형, 주생활행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공간은 주거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과의 대응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주거는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에 일반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주거디자인은 거주자의 주생활과 주거 문화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거의 두지 않고, 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과정이 무시된 채 공급자의 일방적인 제안에 따라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사비의 절감이나 시공성 향상을 위한 주택 생산

의 합리화 노력, 자연보호를 위한 건축에 있어서 폐자재의 발생억제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건설방식만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장중심의 습식공법의 일체식 구법이며,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기에 역부족하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리모델링이 어려운 설계와 시공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업화를 실현하고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 각 건설업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업화와 가변형에 대한 계획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이 가변성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상호 외, 1997; 김상호, 1999; 박준영, 1998; 박준영 1999).

한편 선진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집합주택의 공업화와 가변화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SAR(Stichting

*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남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임(과제번호: C00353)

Architecten Research)시스템(SAR-65)의 개발이다(Habraken,1978). 그러나 SAR의 경우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을 더 강조했으며 이러한 SAR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된 기술적인 면을 보강한 최근의 연구가 오픈 빌딩 시스템이다(Kendal, 2000).

일본에서의 오픈하우징 시스템 연구는 스키텔트·인필주택(Skelton and Infill Housing) 또는 SI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도시정비공단의 KEP(Kodan Experimental Housing System), CHS(Cen System)(Fukao, 1987)등에서 진행해왔다. SI주택은 100년을 건딜수 있는 스키텔트(서포트(Supports)와 동일)과 가변성이 뛰어난 인필을 조합한 것으로 집합주택을 몇 개의 공업화 부품으로 조합시켜 건설하고 다양성이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구체적으로는 치수규격이나 내구력을 고려한 공법 등의 개발을 유도해 오픈하우징의 기술적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Next 21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위주거, 고층구조물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의 최소화, 쓰레기와 배수의 건물내에서의 처리가능성, 효율적 에너지 사용 등을 목표로 조직화된 건설방법을 통해서 잘 보여 주었으며(Itoh, K.(ed), 1994; Kendal, 1995; Utida, Yosataka., 1995), 한 단계 더욱 발전시켜 2단계 공급방식의 이념에 의해 물리적인 하우징시스템을 스키텔트(skelton), 크래딩(cradding), 인필(infill)이라는 세 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개발시켜 왔다(Takada, 1998).

이러한 오픈형 빌딩 시스템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입주후 소득수준의 향상,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설비시설의 고품질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또는 개방형 아파트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 효율성과 함께 환경,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의 아파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형 시스템의 기술적 개발에 앞서서 한국인의 주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대응하는 평면구성방법에 대한 계획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거평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주생활 행태를 분석하고, 각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공간기능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인의 주생활행태 유형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주생활행태 유형에 근거하여 평면구성방법에 대한 계획지침이 제시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평면유형 중 3침실형, 30평형대, 3-bay형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배치 유형, 공간이용실태, 공간사용의식 등을 파악하여 한국인의 주생활 행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오픈 하우스 시스템 개발과 평면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구배치유형, 공간이용실태, 공간사용의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주생활패턴에 대한 분석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아파트는 국내아파트 평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30평형대이고 거실, 주방·식당이 있는 3침실형이면서 진입방식이 계단실 유형인 것 중에서 전면의 디자인이 3-베이형으로 제한하였고 조사대상의 표집은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로 나누어 인구비율에 맞추어 총 142세대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 보완된 개방 설문지로서 직접면접조사와 채취조사를 병행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에 이용될 모든 자료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공간별 가구배치유형, 공간사용의식과 공간이용실태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조사도구는 먼저 각 공간별 가구배치유형은 도면을 제시하여 거주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주생활행태는 공간사용의식과 공간이용실태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 공간사용의식은 주요실(안방, 거실, 주방/식당, 침실 등)에 대한 기능에 대한 거주자의 개념 및 생각을 조사하고 공간이용실태는 각 실에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이연숙의, 1989; 김미희, 1991; 윤정근과 유길준, 1998)의 조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의 거주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거주자 특성으로 남편연령, 3부연령, 남편학력, 주부학력, 남편의 직업, 주부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가족생활주기, 거주년수 등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 평균연령은 43.2세, 주부 평균연령은 40.6세였으며, 남편학력은 대졸이상이 70.6%, 주부학력은 대졸이상이 47.7%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중 사무직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부의 취업율은 41.1%였으며, 거주년수의 평균은 42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은 평균 월 375만원이며, 가족생활주기는 중등교육기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II. 조사결과 및 분석

1. 각 공간별 가구배치 및 개조현황

도면채취를 통한 각 공간별 가구배치 및 개조실태를 살펴보면 <표1>, <표2>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한 대표적인 가구배치유형을 도면화 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1) 각 공간별 가구배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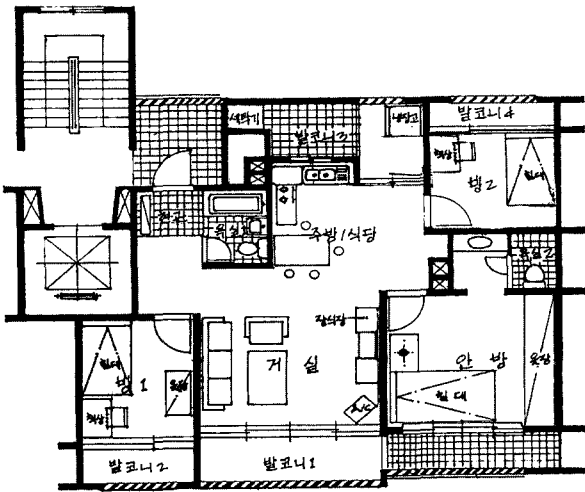


그림 1. 대표적인 가구배치유형

(1) 거실

거실의 가구배치유형은 140가구에서 67개의 유형이 나왔으며, 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소파+장식장”으로 11.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파+TV+장식장” 8.6%, “소파+TV” 6.4%, “소파+장식장+컴퓨터”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면채취를 통한 거실의 가구배치유형 결과를 보면 ‘거실에는 TV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TV가 없는 경우가 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실로 주로 이용되는 방1과 방2에 배치되어야 할 컴퓨터가 거실에 배치된 경우가 19%(140가구에서 19%)로 나타난 것은 자녀학습과 관련하여 자녀의 TV시청자제와 인터넷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거실에서의 TV배치는 안방으로의 이동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안방의 가구배치유형 결과에서 TV배치비율이 24%(138가구중 24%)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안방

안방의 가구배치유형은 138가구에서 43개의 유형이 나왔으며, 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침대+옷장” 배치가 35.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침대+옷장+화장대” 11.6%, “옷장” 8.7%, “침대+옷장+TV” 6.5%로 나타났다. 안방에서 주부의 몸단장이 이루어지고 화장대의 배치가 당연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침대+옷장’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장대가 없는 가구배치 경우가 67%(138가구중 67%)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안방에 화장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안방과 연결된 화장실이 주부의 화장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생활행위 조사결과 중 욕실에서의 머리드라이 46.5%, 화장하기 14.1% 등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 각 공간별 가구배치유형*

공간	가구 유형	N	%	
거실	소파+장식장	16	11.4	
	소파+TV+장식장	12	8.6	
	소파+TV	9	6.4	
	소파+장식장+컴퓨터	5	3.6	
	계	142	100	
안방	침대+옷장	45	35.6	
	침대+옷장+화장대	16	11.6	
	옷장	12	8.7	
	침대+옷장+TV	9	6.5	
	계	138	100	
방1	침대+옷장+책상	15	10.9	
	침대+책상	12	8.7	
	책상+컴퓨터	6	4.3	
	계	138	100	
	방2	침대+옷장+책상	20	15.3
침대+책상		17	13	
침대+책상+책장		6	4.6	
계		131	100	
주방/식당		식탁	61	52.6
	식탁+냉장고	36	31	
	계	116	100	
	balcony 3	세탁기+냉장고	43	38.7
		세탁기	29	26.1
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		11	9.9	
계		111	100	

*여러가지 유형중 대표적인 3-4기 유형만 사례제시함.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생활행위 조사결과 중 욕실에서의 머리드라이 46.5%, 화장하기 14.1% 등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식당 겸 부엌

식당겸부엌의 가구 유형분포는 “식탁” 유형이 52.6%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식탁+냉장고”가 31%로 나타났다. “식탁”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방/식당에 식탁과 냉장고가 배치된다는 기존의 생각과 매우 다른 결과였으나, balcony3(부엌앞 다용도실)에 냉장고가 배치된 가구배치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냉장고가 식당겸부엌에서 balcony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방1, 방2

방1과 방2의 가구배치유형을 살펴보면 비율이 높은 유형이 둘 다 “침대+옷장+책상”으로 각각 10.9%, 15.3%로 동일하였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유형도 “침대+책상”으로 각각 8.7%, 13.0%로 같게 나타났다.

1) 이미혜외 2인(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안방에서 가장 많이 비치된 가구는 수납기능을 가진 장롱과 문갑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의 휴식과 주부의 개인적 행위를 위한 TV(75.8%), 좌식화장대(54.0%)등이 중요 가구로 나타났으며 안방의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침대는 수납기능을 가진 가구보다 보유율이 낮았다.

(5) 발코니3

발코니 3의 가구배치유형에서는 “세탁기+냉장고”의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세탁기”로 26.1%, “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가 9.9%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부엌 앞 다용도실에 세탁기만 위치되었던 기존의 경우와는 다른 경향으로써 주방의 냉장고가 다용도실로 이전되고 김치냉장고의 출현으로 부엌 앞 다용도실을 바닥공사하여 그곳에 김치냉장고가 위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개조현황

각 공간별 개조현황과 개조실태유형에 관한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각 공간별 개조현황 중 방2확장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1확장 30.7%, 거실확장 29.5%로 나타났다. 또한 개조실태의 유형 중 거실확장+방1확장+방2확장의 경우가 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공간사용실태

주생활행위는 크게 개인생활, 가족단란, 가사생활, 접객행위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안방, 거실, 주방/식당, 방1, 방2, 화장실, 발코니공간에서 주생활행위를 살펴보았다.

1) 개인생활행위

<표 3>에 나타난 개인생활행위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취침(남편취침 86.6%, 아내취침 93.7%), 화장하기 71.8%, 옷갈아입기 85.2% 등의 부부관련 개인생활

행이 안방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취침과 놀이행목은 주로 방1,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거실에서는 남편취미생활 52.8%, 아내취미생활 57.0%, 신문읽기 79.6%, 음악감상 73.2%, 개인TV시청 80.3%등의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방/식당에서는 아내취미생활 17.6%, 개인독서 10.6%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단란행위²⁾

가족단란행위의 분포를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안방의 기능에 포함되었던 가족단란행위가 현재는 안방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부부끼리 대화 57.0%와 부부끼리 TV시청이 43.7%로 비교적 높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9.9%, 가족TV시청 9.9%, 가족전체대화 9.2%가 다소 이루어졌다. 이는 안방의 기능이 부부중심형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거실에서의 가족단란행위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주방/식당에서는 가족식사 89.4%, 가족과의 차나 과일 등의 후식 27.5%, 가족전체대화 24.6%,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20.47% 등으로 가족단란행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접객행위

접객행위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접객행위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접객행위가 거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방/식당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실에서는 남편손님식사대접 83.8%이 아내손님식사대접 5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남편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92.3%가 아내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7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주방/식당에서는 그 반대로 아내손님식사대접 67.6%이 남편손님식사대접 26.1%보다 높게 아내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44.4%이 남편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9.9%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가사생활행위

가사생활행위를 <표 5>와 함께 살펴보면, 거실에서 빨래정돈 76.8%, 다림질 71.1%, 바느질(재봉) 60.6% 등의 행위가 높게 나타나 거실에서 가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방에서는 주로 음식조리 94.4%, 식품손질 83.1%, 큰요리작업 73.2%, 식품저장 52.8%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안방에서 다림질 18.3%, 바느질 21.1%, 기계부정리 38.0%등의 가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발코니의 경우, 부엌앞 발코니에서 손빨래 66.9%, 빨래널기 11.3% 등의 세탁행위와 식품저장 52.1%, 식품건조 43.7%, 식품손질 26.1%, 큰요리작업 24.6%등의 조리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거실앞 발코니에서는 빨래널기 87.3%, 빨래정돈 19.0%, 손빨래 12.0% 등의 세탁행위와 식품건조 44.4%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

표 2. 각 공간별 개조현황 및 개조실태

		개조형태	N	%
각 공간별 개조 현황*		방2확장	30	34.1
		방1확장	27	30.7
		거실확장	26	29.5
		주방확장	2	2.3
		발코니바닥공사	2	2.3
		안방확장	1	1.1
		계	88	100
개조 실태 유형**		거실확장+방1확장+방2확장	17	12.0
		방1확장+방2확장	5	3.5
		거실확장+방2확장	3	2.1
		거실확장	3	2.1
		방1확장	2	1.4
		주방확장	2	1.4
		방1 쪽 발코니 & 방2 쪽 발코니 & 주방 쪽 발코니 바닥공사	1	0.7
		방2확장	1	0.7
		거실쪽 발코니 & 방1 쪽 발코니 & 방2 쪽 발코니 바닥시공	1	0.7
		거실확장+안방확장+방1확장+방2확장	1	0.7
		개조안함	106	74.7
		계	142	100

*: 각각의 수치는 142개 중 개조한 수

** : 142세대 중 36세대가 개조

2) 이유미 외 2인 (2001) 연구 “소형아파트거주자의 실내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가족간의 오락, TV시청, 가족대화등 가족단란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은 주로 거실이었다.

표 3. 각 공간별 개인생활행위 발생분포*

개인생활행위	공 간	안방 N(%)	방1 N(%)	방2 N(%)	거실 N(%)	식당겸부엌 N(%)	거실앞 베란다 N(%)	욕실 N(%)
남편 취침		123(86.6)	8(5.6)	8(5.6)	25(17.6)	0(0)	0(0)	0(0)
아내 취침		133(93.7)	3(2.1)	3(2.1)	15(10.6)	0(0)	0(0)	0(0)
첫째자녀 취침		31(21.8)	82(57.7)	31(21.8)	8(5.6)	0(0)	0(0)	0(0)
둘째자녀 취침		26(18.3)	29(20.4)	68(47.9)	9(6.3)	0(0)	0(0)	0(0)
기타가족 취침		5(3.5)	25(17.6)	33(23.2)	23(16.2)	0(0)	0(0)	0(0)
개인독서		44(31.0)	55(38.7)	39(27.5)	76(53.5)	15(10.6)	3(2.1)	1(0.7)
첫째 자녀학습		7(4.9)	80(56.3)	31(21.8)	37(26.1)	8(5.6)	1(0.7)	0(0)
둘째 자녀학습		5(3.5)	36(25.4)	61(43.0)	33(23.2)	5(3.5)	1(0.7)	0(0)
첫째 자녀놀이		3(2.1)	57(40.1)	43(30.3)	75(52.8)	3(2.1)	4(2.8)	0(0)
둘째 자녀놀이		5(3.5)	26(18.3)	55(38.7)	65(45.8)	4(2.8)	8(5.6)	0(0)
남편 취미생활		38(26.8)	11(7.7)	13(9.2)	75(52.8)	1(0.7)	13(9.2)	1(0.7)
아내 취미생활		37(26.1)	7(4.9)	6(4.2)	81(57.0)	25(17.6)	8(5.6)	3(2.1)
머리드라이		57(40.1)	15(10.6)	7(4.9)	12(8.5)	0(0)	2(1.4)	66(46.5)
화장하기		102(71.8)	20(14.1)	13(9.2)	11(7.7)	2(1.4)	0(0)	20(14.1)
신문읽기		31(21.8)	3(2.1)	5(3.5)	113(79.6)	11(7.7)	4(2.8)	13(9.2)
낮잠자기		95(66.9)	28(19.7)	30(21.1)	68(47.9)	3(2.1)	1(0.7)	0(0)
음악감상		17(12.0)	15(10.6)	14(9.9)	104(73.2)	10(7.0)	2(1.4)	0(0)
개인 TV시청		50(35.2)	7(4.9)	4(2.8)	114(80.3)	2(1.4)	1(0.7)	0(0)
휴식		70(49.3)	22(15.5)	21(14.8)	101(71.1)	6(4.2)	3(2.1)	1(0.7)
옷갈아입기		121(85.2)	49(34.5)	38(26.8)	5(3.5)	0(0)	2(1.4)	3(2.1)
운동·헬스		3(2.1)	2(1.4)	1(0.7)	65(45.8)	0(0)	29(20.4)	0(0)
화초가꾸기		1(0.7)	0(0)	0(0)	22(15.5)	3(2.1)	105(73.9)	0(0)
pc,인터넷사용		8(5.6)	49(34.5)	38(26.8)	42(29.6)	0(0)	2(1.4)	1(0.7)

* 각 공간별 가족단란/접객행위의 발생분포는 중복허용자료임

표 4. 각 공간별 가족단란/접객행위 발생분포

행 위	공 간	안방 N(%)	방1 N(%)	방2 N(%)	거실 N(%)	식당겸부엌 N(%)	
가족 단란 행위	가족전체대화		13(9.2)	2(1.4)	2(1.4)	132(93.0)	35(24.6)
	부부끼리대화		81(57.0)	9(6.3)	2(1.4)	84(59.2)	19(13.4)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14(9.9)	28(19.7)	26(18.3)	119(83.8)	29(20.4)
	가족모임, 놀이		5(3.5)	1(0.7)	4(2.8)	137(96.5)	10(7.0)
	가족과의 차나 과일등의 후식		3(2.1)	1(0.7)	1(0.7)	129(90.8)	29(27.5)
	가족식사		1(0.7)	0(0)	0(0)	33(23.2)	127(89.4)
	가족TV시청		14(9.9)	1(0.7)	1(0.7)	113(93.7)	5(3.5)
	부부끼리 TV시청		62(43.7)	4(2.8)	1(0.7)	89(62.7)	2(1.4)
접객 행위	남편손님 식사대접		6(4.2)	1(0.7)	2(1.4)	119(83.8)	37(26.1)
	아내손님 식사대접		5(3.5)	0(0)	0(0)	74(52.1)	96(67.6)
	자녀손님 식사대접		1(0.7)	23(16.2)	14(9.9)	65(45.8)	75(52.8)
	친인척 식사대접		8(5.6)	0(0)	0(0)	125(88.0)	46(32.4)
	가장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5(3.5)	4(2.8)	2(1.4)	131(92.3)	14(9.9)
	주부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4(2.8)	0(0)	0(0)	107(75.4)	63(44.4)
	자녀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1(0.7)	49(34.5)	41(28.9)	82(57.7)	35(24.6)
	친인척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6(4.2)	0(0)	0(0)	133(93.7)	28(19.7)
손님취침		14(9.9)	70(49.3)	74(52.1)	39(27.5)	2(1.4)	

* 각 공간별 가족단란/접객행위의 발생분포는 중복허용자료임

고 있었다.

3. 공간사용의식

아파트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공간사용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내의 안방(방1), 거실, 부엌·식당, 거실앞발코니, 부엌측 다용도실, 자녀실 등의 공간과 그 공간에 관한 의식 등을 총 34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공

표 5. 각 공간별 가사생활행위 발생분포*

가사생활행위	공 간	안방 N(%)	방1 N(%)	방2 N(%)	거실 N(%)	식당겸부엌 N(%)	거실앞발코니 N(%)	부엌앞발코니 N(%)	현관쪽화장실 N(%)
손빨래		1(0.7)	0(0)	0(0)	0(0)	1(0.7)	17(12.0)	95(66.9)	40(28.2)
빨래정돈		11(7.7)	0(0)	0(0)	109(76.8)	4(2.8)	27(19.0)	3(2.1)	1(0.7)
빨래 널기		0(0)	0(0)	0(0)	6(4.2)	1(0.7)	124(87.3)	16(11.3)	0(0)
다 립 질		25(18.3)	12(8.5)	14(9.9)	101(71.1)	13(9.2)	1(0.7)	0(0)	0(0)
바느질(재봉)		30(21.1)	9(6.3)	10(7.0)	86(60.6)	9(6.3)	1(0.7)	0(0)	0(0)
가계부 정리		54(38.0)	7(4.9)	7(4.9)	29(20.4)	48(33.8)	0(0)	1(0.7)	0(0)
음식조리		0(0)	0(0)	0(0)	1(0.7)	134(94.4)	0(0)	10(7.0)	0(0)
큰요리작업		0(0)	0(0)	0(0)	7(4.9)	104(73.2)	1(0.7)	35(24.6)	0(0)
식품손질		0(0)	0(0)	0(0)	5(3.5)	118(83.1)	2(1.4)	37(26.1)	0(0)
식품저장		0(0)	0(0)	0(0)	0(0)	75(52.8)	8(5.6)	74(52.1)	0(0)
식품건조		0(0)	0(0)	0(0)	1(0.7)	22(15.5)	63(44.4)	62(43.7)	1(0.7)

*각 공간별 가사생활행위의 발생분포는 중복허용자료임

표 6. 공간사용의식의 일반적 경향

사 용 의 식	공 간					점 수 ^{a)}	평균 ^{b)}
	1	2	3	4	5		
안방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40.8	31.0	16.2	10.6	1.4	2.61	
안방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7.0	26.1	26.8	32.4	7.0	2.92	
안방은 손님과 자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부만의 공간이다.	2.1	13.4	8.5	48.6	26.8	3.26	
안방은 가사작업(다림질, 빨래정돈)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19.7	21.8	26.8	28.2	3.5	2.80	
안방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52.8	28.9	13.4	4.9	0	2.45	
안방(부부침실)은 부부의 여가·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9.2	14.8	26.1	37.3	12.7	3.13	
예우할 손님은 안방에서 모셔도 된다.	23.9	24.6	20.4	26.1	4.2	24.8	
안방(부부침실)외에 부부의 여가·취미활동을 위한 별도의 실이 있으면 좋겠다.	5.6	18.3	23.9	23.2	26.8	3.13	
거실은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이다.	0	0.7	12.7	47.2	38.7	3.43	
가족간의 모임과 답소를 위한 가족실이 있으면 좋겠다.	14.8	20.4	31.7	18.3	14.1	3.01	
우리 집 가정생활은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1.4	4.2	3.5	38.0	52.8	3.52	
부엌·식당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1.4	2.1	17.6	57.0	21.8	3.36	
부엌·식당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3.5	9.2	26.1	49.3	12.0	3.11	
부엌·식당은 수납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 좋다.	2.1	5.6	10.6	33.8	45.8	3.38	
부엌은 조리과 식사준비같은 책사작업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한다.	12.7	35.9	21.1	22.5	6.3	2.92	
부엌과 식당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 좋다.	12.0	37.3	22.5	18.3	9.9	2.93	
식당은 식사와 장소라기 보다 가족단란의 장소로서 의미가 크다.	2.8	12.0	34.5	34.5	14.8	3.10	
우리 집 가정생활은 식사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2.1	21.1	37.3	34.5	4.9	3.04	
간단한 빨래는 부엌에서 해도 좋다.	5.6	7.0	13.4	56.3	17.6	3.21	
손님접대를 위한 별도의 응접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7.0	19.0	32.4	27.5	14.1	3.18	
손님접대를 위해 잘 갖추어진 식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5	29.6	35.2	19.0	7.0	2.95	
손님접대와 가족단란을 위한 방은 구분되는 것이 좋다.	6.3	27.5	23.9	28.2	14.1	3.15	
다림질이나 빨래 정돈 등을 위해 가사실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8.5	24.6	23.9	32.4	10.6	3.12	
욕실, 세면실, 변소는 별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9.9	19.0	31.0	23.2	16.2	3.15	
간단한 빨래는 욕실에서 해도 좋다.	50.0	27.5	11.3	9.2	1.4	2.48	
거실앞 발코니는 자녀의 놀이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10.6	19.0	18.3	38.7	13.4	3.10	
거실앞 발코니는 운동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4.2	11.3	21.8	52.8	9.9	3.26	
거실앞 발코니는 세탁 및 빨래 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2.1	7.0	9.2	54.2	27.5	3.29	
거실앞 발코니는 장독(원장, 고추장)등의 보관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11.3	22.5	19.7	30.3	15.5	3.08	
부엌측 다용도실은 세탁 및 빨래 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10.6	23.9	20.4	35.9	8.5	3.00	
부엌측 다용도실은 음식물, 식품류의 보관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0.7	2.1	7.0	57.7	32.4	3.48	
부엌측 다용도실에 별도의 조리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3.5	10.6	23.9	33.1	28.9	3.20	
자녀실은 자녀만을 위한 공간이다.	2.1	7.7	14.8	45.1	30.3	2.89	
자녀실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6.3	31.0	33.1	23.2	6.3	2.89	

*a) 각 응답별 % (1-전혀그렇지않다 2-대체로그렇지않다 3- 그저그렇다 4-대체로그렇다 5-정말그렇다.)

b) 5점 리커트의 평균 점수

간사용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안방(침실1)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안방은 손님과 자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부만의 공간이다.”에 대해 75.4%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안방은 손님 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는 71.8%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안방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이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편취침 86.6%, 아내취침 93.7%, 가족단란행위 중 부부끼리 대화 57.0%로 나타난 결과<표 3 참조>와 접객행위들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난 주생활행위의 결과<표 4 참조>와 일목 상통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부엌·식당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부엌·식당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에서 78.8%, ‘부엌·식당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에서는 61.3%의 거주자들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표 4 참조>에서도 가족단란행위 중 가족식사 89.4%, 가족과의 차나 과일 등의 후식 27.5%, 가족전체대화 24.6%,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2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사용실태에서도 부엌·식당공간이 가족단란행위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접객행위 중 아내손님식사대접 67.6%, 자녀손님 식사대접 52.8%, 주부손님에게 차나 과일등의 접대 44.4% 등의 결과<표 4 참조>를 볼 때, 실제 부엌·식당에서의 접객행위의 분포와 의식간의 결과는 같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거실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집 가정생활은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가 90.8%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여 거실이 주거공간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간사용실태 결과에서도 거실공간이 다양한 행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의식과 실제 행위에 있어서 거실중심형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픈 하우스 시스템의 기술적 개발에 앞서서 한국인의 주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응하는 평면구성방법에 대한 계획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에 대응하여 거주자의 주생활의 행태분석과 각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오픈하우징 시스템과 평면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 아파트의 평면유형 중 3침실형 3-bay형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에 의하여 가구

배치유형, 공간이용실태, 공간사용의식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도면 채취를 통한 가구배치유형을 조사한 결과 거실의 TV고정배치경향이 없었다. 이는 안방의 TV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제까지 TV시청행위가 가족단란으로 여겨졌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거주자들이 TV시청을 개인생활로써 여기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방의 경우, 안방에 배치가 고정화되었던 화장대가 가구배치유형에서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주생활행위의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몸단장 행위인 머리카락과 화장이 욕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는 안방과 연결된 화장실의 기능에 화장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동안 냉장고와 식탁의 배치로 주로 인식되어 왔던 식당 겸부엌에 식탁만의 배치가 과반수이상 나타났으며 발코니3(부엌앞 다용도실)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배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30평대 아파트의 식당공간의 협소로 식당공간확보를 위해 발코니3에 냉장고를 배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식당겸부엌 공간에 손님접대와 가족단란행위가 주거의식과 행위부분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보면 부엌과 식당공간의 분리를 통하여 가사작업공간과 식사·다과를 통한 가족단란 및 손님접대공간의 확보를 거주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공간사용의식과 공간이용실태에 대한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안방을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안방에서는 개인생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으로 안방에서 행해져 왔던 가족단란행위는 안방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식사행위를 제외한 모든 가족단란행위가 높게 나타나고 개인생활행위, 접객행위, 가사작업행위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공간기능의 복합화가 더욱 뚜렷해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사작업공간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던 식당 겸 부엌에 대하여 손님접대와 가족단란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식당 겸 부엌에서 접객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당 겸 부엌에 관한 사용의식이 가사작업공간에서 가족단란이나 손님접대공간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거실의 공간기능의 복합화, 식당 겸 부엌의 가사작업공간과 단란·접대공간의 기능분화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실과 인접공간을 연계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변적으로 거실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되어야 하겠다. 둘째, 식당 겸 부엌은 가사작업공간인 부엌과 단란·접대공간인 식당을 분리 또는 중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경우에 따라 위치변경을 재고하여 거실과 연계된 LD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상호·김수암·장재호(1997), “주택부품시스템에 관한 연구 (I)-국제 주택부품의 개발 현황 조사분석”,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2. 김상호(1999), “주택의 부품화와 부품산업의 활성화 방안- 우량주택부품 인정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제43권 7호.
3.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평면 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pp. 59-107.
4. 김미희·윤복자(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 트 거 주자의 공간사용방식(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10호, pp. 25-39.
5. 김미희(1996), 벨지움의 주거공간사용행태에 대한 연구 (I)- 화란어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가 정 과학연구, 제6권 pp. 39-47.
6. 김미희·문화정(2001), 식당겸부엌 전면배치형 아파트의 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획 계, 17권 8호, pp. 51-58.
7. 박준영(1998),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화의 종합구성체계와 모듈정합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박 사 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8. 박준영(1998), “표준화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43권 7호, 통권242호.
9. 이미혜·윤재웅·장석하(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양 식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0권 4 호, pp. 137-146.
10. 이연숙·김미희·오찬옥·이숙영·최수현(1990), 주거공간 내 에서의 주생활행위 및 행위간 갈등에 관한 연구-집합 주거 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연구 II- 대한 건 축학회 논문집, 제6권 3호, 통권29호 pp. 21-34.
11. 이유미·임미숙·백혜선(2001), “소형아파트 거주자의 실 내공 간 이용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17권 2호, pp. 19-27.
12. 허묘분(1999), “개방형 건축 시스템(OBS)을 적용한 아 파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원 건 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3. S. Fukao(1987), "Century Housing System: Background and Status Report. Changing Patterns in Japanese Housing(ed S. Kendal). Special Issue, Open House International. 12(2), pp. 30-37.
14. Habaraken, N. J., et. el(1976), Variation: the systematic design of support. MIT press.
15. K. Itoh(ed)(1994), Next21 Special Issue, SD25.
16. Kendall, H. Stephen(1995), Development Toward Open Building in Japan. Unpublished Report.
17. Kendall, Stephen & Jonathan Teicher(2000), Residential Open Building, E&FNSPON.
18. Utita, Yosikata(1995), "The Experimental Housing" "Next 21".
19. 삼성아파트. www.samsungapt.co.kr

(接受 : 2005. 1. 10)